

내집단의 특성이 다문화 집단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통합적 갈등이론을 중심으로

오 영 삼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학교)

남 성 희*

(이화여자대학교)

윤 수 경

(연세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내집단의 구성원들이 속해있는 다양한 집단들의 특성과 다문화 수용태도와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2011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중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29,50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통합 집단 갈등이론이 제시하는 집단 간 갈등 원인(현실적 갈등, 상징적 갈등, 집단 간 불안, 부정적 고정관념)을 적용하여 내집단 구성원들을 고용형태, 연령, 그리고 외국인거주비율의 3가지 준거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형태의 경우, 상용직, 일용직, 그리고 무직집단에 속해있는 구성원들이 고용주집단에 속한 구성원에 비해 다문화집단에 높은 다문화 수용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의 경우, 노년층과 중장년층에 속한 구성원들은 청년층에 속한 구성원에 비해 낮은 다문화 수용태도를 보였다. 셋째, 외국인 거주비율이 고밀도인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들은 평균이하의 밀도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에 비하여 낮은 다문화 수용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문화와 관련된 문제가 다양한 갈등의 구조로 인해 혼재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시도한 통합적 갈등이라는 분석의 틀은 다양한 관점이 내재되어 있는 다문화관련 이슈와 갈등의 양상을 해석하는 틀로써 그 의의가 있다.

주요용어: 다문화 수용태도, 통합적 갈등이론, 현실적 갈등, 상징적 갈등, 집단 간 불안

* 교신저자: 남성희, 이화여자대학교(snam528@ewha.ac.kr)

■ 투고일: 2014.4.30

■ 수정일: 2014.6.10

■ 게재확정일: 2014.6.18

I. 서론

현재 우리 사회에는 외국인노동자와 국제결혼이주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2012년도를 기준 140만 명(전체 인구의 2.8%)이 넘는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다(법무부, 2013). 사회 전역에서 다문화사회라는 용어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고 다양한 다문화 프로그램과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배타주의적 문화 안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임도경 · 김창숙, 2011). 우리사회에 만연한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질적이고 낯선 것에 대한 거부감,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기인한 외국인에 대한 혐오적인 태도, 그리고 외국인에게 동정심과 연민을 느끼지만 결국에는 이들을 주변화(marginalization) 시키는 태도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최명민 외, 2009; 신동준, 2012). 즉, 외국인을 ‘우리’라고 인식하여 내집단으로 포함시키기 보다는 ‘그들’로 인식하여 외집단으로 구별하고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최명민 외, 2009).

국제결혼 이주자 및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법과 정책적 제도가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 이주자 및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그 가족들은 차별, 낙인, 그리고 사회적 배제 등의 부정적 경험을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다(이종복 외, 2012). 앞서 언급하였듯이 결혼 이주자, 외국인 노동자 및 다문화 가족(이하 다문화 집단)이 경험하는 차별과 배제를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우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으나 외국인, 즉 외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인식이 내집단 구성원의 의식에 존재하는 이상 이러한 법과 제도적인 노력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다문화 집단에 대한 내집단의 배타적 수용태도는 다문화 사회의 정착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과정에서 갈등을 야기하고, 궁극적으로 다문화 집단의 구성원들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저해요인이 된다(유승무 · 이태정, 2006; 김이선 외, 2007).

일반적으로 다문화 집단에 대한 수용적 태도는 다차원적 범주 안에서 영향을 받는다. 사회 안에서 개인은 하나 이상의 집단에 속해 있으며 자신이 속한 집단의 특성에 따라 다문화 집단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다문화 집단에 대한 수용적 태도는 먼저 개인이 속한 인구학적(Demographic) 집단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성별에 따른 집단, 종교에 따른 집단, 그리고 사회적 계층에 따른 집단과 같이 개인의 가치관 및 신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특성이 그 예이다(김상

학, 2004; 원숙연, 2011). 개인이 속한 사회·경제적 특성 또한 다문화 집단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개인의 고용상태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특성은 다문화 집단에 대한 그들의 인식 및 태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원숙연, 2011; 오영삼·노은영, 2014). 한편, 다양한 연구에서 외집단과의 접촉빈도 및 관계적 특성이 개인의 수용태도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집단의 거주 밀도가 증가할수록, 즉 접촉의 가능성이 커질수록 외집단에 대한 내집단의 수용태도가 낮아지는 경우(원숙연, 2011)와 접촉의 빈도가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낮추는 효과(김혜숙 외, 2011)를 함께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에서 외국인과의 접촉을 통해 얻은 직접경험과 대중매체 등을 통하여 내제되는 간접경험이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송미영, 2010; 김승환, 2013; 전미순 외, 2013).

다문화 집단에 대한 수용과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국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 또는 태도(송미영, 2010; 황윤영·이은숙, 2013), 다문화 관련 전문가 및 교사들이 취하는 다문화관련 태도(권승, 2009; 조혜영, 2009; 임동진·박진경, 2012), 다문화인식 관련 프로그램(장인실, 정경미, 2009; 이인재, 2010) 등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연구들이 다문화 수용태도와 이 수용태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으나, 다문화 수용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밝히는 데는 그 관심이 덜한 것이 사실이다. 일부의 연구에서는 수용태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이 지역, 직업, 연령 등과 같이 개인이 속한 단일범주 및 특정 집단으로 한정시킨 후 다문화 수용과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집단에 대한 개인의 수용적 태도는 개인이 속한 여러 가지 범주와 집단으로부터 다양하고 밀접하게 영향을 받음을 상기할 때, 기존의 연구는 단일차원이라는 틀이 가지는 한계를 모두 가질 수밖에 없다. 일부의 연구에서는 개인적 수준과 집합적 수준을 모두 고려한 다차원 분석(원숙연, 2011)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이러한 접근을 시도한 연구의 수가 소수일 뿐만 아니라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연구의 외적 타당도가 낮은 수준에서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개인이 속한 다차원적 집단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통합되어 다문화 집단에 대한 수용태도를 형성하게 된다고 가정하고, 개인이 속해있는 다양한 집단요소들이

다문화 집단들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집단적 특성과 수용태도와의 선형적 관계가 내집단이 외집단과의 관계에서 경험하고 인지하는 갈등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가정의 이론적 근거를 위하여 통합적 갈등이론(Stephan et al., 1999a)을 연구의 분석틀로 설정하였다. 통합적 갈등이론은 단일집단이 아닌 개인이 속한 다양한 집단과 그 집단들에 내재하고 있는 특수한 갈등이 개인이 인지하는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의 형성에 주원인이 된다고 가정한다. 통합적 갈등이론의 이론적 가정은 전체 내집단이 전체 외집단에 보이는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설명하는데 상당히 유용할 뿐만 아니라 내집단 안에서도 발견되는 외집단에 대한 인식의 개별적 혹은 개인적 차이를 설명하는데도 매우 효과적이다. 이에 통합적 갈등이론을 바탕으로 내집단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러한 다양한 갈등요인이 내집단의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통합적 갈등이론 (Integrated threat theory)

집단 간의 관계란 “한 사회적 집단 혹은 범주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집단 및 범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전반적인 방법”을 의미한다(Hogg, 2013: p.533). 같은 맥락에서 다문화 사회의 민족 간의 관계(inter-ethnic relation)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상호관계 하는 가를 지칭한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한 국가 및 사회 내에서 민족 간의 관계(집단 간의 관계)는 주로 시장에서 발생하는 갈등, 경쟁, 그리고 착취 등의 자원 및 노동의 관점(현실적 집단갈등이론; Esses et al., 1998)으로 해석되거나 일상에서 발현하는 적대(hostility), 비관용(intolerance), 그리고 편견 등의 집단의 인식의 관점(사회정체성 이론; Tajfel & Turner, 1986)으로 설명되곤 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발생하는 민족 및 집단 간의 갈등과 편견은 상위의 이론들로 설명되는 기본적인 현상보다 더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Zarate et al., 2004; Hogg, 2013). 예를 들어, 노동의 관점에서 근로자는 노동시장에서 직면하는 경쟁관계로 인하여 외국인 노동자에게 낮은 수용

및 높은 적대심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Arosón & Gonzales, 1988; 오영삼·노은영, 2014). 하지만 이들은 동시에 연령과 그리고 지역적 특색에 의하여 또 다른 개별 내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며, 소속 집단의 특성에 따라 다문화 집단에 대해서 다른 수용의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집단 간의 갈등과 태도에 관한 연구가 노동, 인지, 집단의 접촉 등의 여러 가지 차원과 관점을 포괄할 때, 더욱 의미 있고 정밀한 분석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위와 같은 관점을 전제할 때, 통합적 갈등이론(Integrated threat theory; Stephan et al., 1999a, 1999b)이 제공하는 다양한 집단 간의 갈등원인과 해석은 이론의 기본 틀로써 본 연구에 다양한 장점을 제공한다. 통합적 갈등이론은 크게 4가지 관점을 전제하고 있는데 각각의 관점은 현실적 갈등(Realistic threat), 상징적 갈등(Symbolic threat), 그룹 간 불안(Intergroup anxiety), 그리고 부정적 고정관념(Negative stereotype)이다.

첫째, 이론에서 언급한 현실적 갈등이란 기본적으로 인지된 갈등이다. 그러나 이 갈등은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믿음에서부터 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간의 현실적 목표, 즉 자원, 취업, 혹은 권력(power)에 대한 경쟁관계로부터 발현된다. 따라서 주로 희소한 자원을 둘러싼 특정 내·외집단 간의 경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집단 내의 구성원들은 경쟁에 바탕을 둔 인지된 현실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Stephan & Stephan, 1996; Hogg,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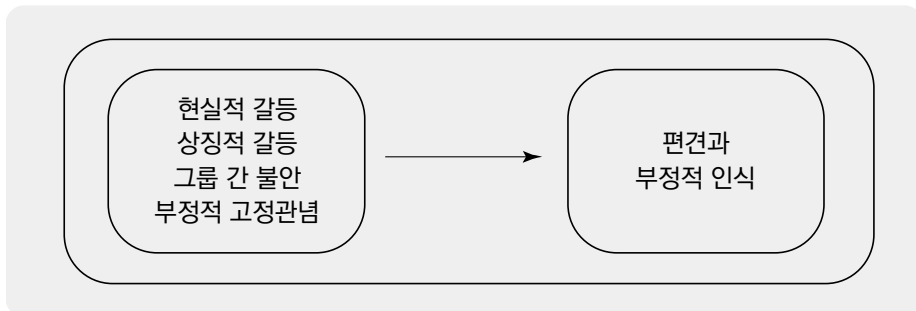
둘째, 이론에서 제시한 상징적 갈등은 개별 집단들이 지닌 도덕적 가치 및 규범, 사회적 기준, 믿음, 그리고 태도 등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즉, 내집단이 내포하고 있는 규범적 가치 및 질서가 다른 외집단의 새로운 가치나 상징(언어, 습관, 행태)에 의해 훼손되거나 상충된다고 느낄 때, 상징적 갈등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Stephan & Stephan, 1996; Stephan et al., 1999a). 다양한 실증연구에서 상징적 갈등은 집단 간의 적대감이나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내집단의 규범적 가치 및 태도를 강하게 유지하는 집단일수록 다른 집단에 대한 높은 적대감 및 갈등을 지니고 낮은 수용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Vala et al., 2006; 인태정, 2009; 윤상우·김상돈, 2010).

셋째, 집단 간의 불안은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과 접촉을 예상하거나 실제로 접촉을 할 때, 발생하는 부정적 감정 및 갈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집단 간의 불안은 내집단의 구성원이 외집단에 속한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부정적

감정에 기반을 두는데 이 부정적 감정은 자아(self)에 대한 위협이나 관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거부 및 불쾌감 등에 대한 반응이라 볼 수 있다(Stangor et al., 1991; Stephan et al., 1999a, 1999b). 따라서 집단 간의 접촉이 자신 혹은 자신의 가족에게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예측하는 집단 혹은 집단 구성원일수록 높은 불안 및 갈등을 가지게 된다.

넷째, 이론이 제시한 마지막 관점은 부정적 고정관념이다.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가지는 부정적 믿음, 기대, 혹은 태도를 의미하며 앞서 언급한 관점들과는 달리 부정적 믿음에 기반을 두었기에 상상된 혹은 기대된 집단 간의 불안이다(Tajfel, 1981; Hogg, 2013). [그림 1]은 통합적 갈등이론이 제시한 4가지 관점의 갈등이 집단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1. 통합적 갈등이론 모형(Stephan et al., 1999a)



2. 실증연구

기존의 실증연구를 살펴보면 외집단인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자국민들(내집단)의 인식은 내집단의 다양한 인구 사회학적 조건 및 인지적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김혜숙 외(2011)의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이주민 집단(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자녀, 그리고 새터민 및 조선족)에 대한 편견적 태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층에도 강하게 나타났는데 성인의 경우, 일정 이상의 소득 군(300만 원 이상)에서는 소득과 편견과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청소년층의 경우에는 소득 군에 상관없이 지속적인 선

형적 관계가 나타났다. 다른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이,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원숙연, 2011). 그리고 오영삼과 노은영(2014)의 연구에서는 고용주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상용직, 일용직, 무직)에서 연령은 다문화 수용에 부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고용형태의 경우, 고용주는 가장 높고 일용직은 가장 낮은 다문화 수용태도를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윤상우와 김상돈(2010)의 연구에서는 자국민의 정치성향, 민족의식, 계층의식, 그리고 유교적 가치관이 다문화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진보적 정치성향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은 사람이 외국인에 대한 친밀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유교적 가치관이 강한 사람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친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수용태도와 관련해서는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지닐수록, 세계화 인식이 강할수록, 외국인에 대한 친밀도가 높을수록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반면에 유교적 가치와 자민족중심주의가 강할수록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다문화 인식에 관한 인태정(2009)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진보적 가치관과 보편주의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학년이 높을수록 인종에 대한 거리감은 짧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외국인과의 접촉과 외국인 친구의 수의 증가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숙연(2011)은 서울시 관내 25개의 구 별 외국인의 거주 규모에 따른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거주외국인의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외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약하고 부정적인 인식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외국인의 증가로 인해 침해, 즉 외국인이 사회문화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인지한 지역은 용산구 등의 외국인의 수가 많은 지역이었으며 침해를 적게 인지하는 지역은 강북구 등의 상대적으로 거주 외국인이 적은 지역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특성들과 다문화 수용과의 영향관계는 특히 노인층에서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노인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수적이며 정통적 가치를 고수하려는 성향을 강하게 보인다(김의철 외, 2000; 이영숙 외, 2001). 김의철 외(2000)의 연구는 이러한 노인들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인, 중장년층, 그리고 청소년의 순으로 보수적 가치를 지향하며 전통지향 역할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백지은(200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인에게 있어 사회통합요인을 포함하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은 인구사회학적 특성보다 유교적주의 및 가족주의 가치관이 더 큰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문화 집단에 대한 인식은 앞서 언급한 내집단의 특성뿐만 아니라 외집단의 특성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황미애(2009)의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외국인의 인종, 출신국가,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상이한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에 따르면 거주 외국인이 흑인이나 후진국 및 개도국 출신, 그리고 노동계급이면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거리감이 강하고 멀게 나타났으나 백인 및 선진국 출신 외국인에 대해서는 부정적 감정의 정도도 낮고 사회적 거리감도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에서도 외집단의 인종적 특성이 내집단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는데(유승무·이태정, 2006; 윤상우·김상돈, 2010), 이들 연구에서는 중국인과 동남아인에 대한 친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북미인, 일본인, 유럽인에 대한 친밀도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대상자들은 선진국 출신 외국인에 대해서는 선망의 태도를 보였으나, 후진국 출신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무시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즉, '선진국 선호의식'과 출신국가에 따른 친밀도 및 거리감 편차가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집단의 사회적 위치와 자국민과의 관계 역시 내집단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김혜숙 외(2011)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자녀와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자국민의 편견적 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에 비하여 조선족, 이주노동자, 그리고 새터민의 순으로 편견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문제 및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다문화 집단에 대한 내집단의 인지를 수용태도를 통해서 측정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수용태도는 자국민의 다문화 집단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측정하고자 할 때, 사회적 거리감과 더불어 기존의 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황미애, 2009; 윤상우·김상돈, 2010; 원숙연, 2011). 본 연구의 다문화 집단에 대한 수용태도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거주 외국인, 그리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자국민의 수용적 인식”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앞서 제시한 이론과 실증적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고용형태, 연령, 그리고 외국인 거주비율을 중심으로 세 가지 다른

형태의 집단을 구분하였다. 이론에 기반을 둔 집단구분이 다문화 집단에 대한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하였다.

1. 노동시장(현실갈등)에서 외국인 이주민과의 경쟁 가능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다문화 집단에 대한 낮은 수용태도를 보일 것이다.
 - 1-1. 임시 및 일용직 집단은 고용주 집단에 비하여 낮은 수용태도를 보일 것이다.
 - 1-1. 상용직 집단은 고용주 집단에 비하여 낮은 수용태도를 보일 것이다.
 - 1-1. 무직집단은 고용주 집단에 비하여 낮은 수용태도를 보일 것이다.

2. 전통 및 도덕적 규범(상징적 갈등)을 고수할 가능성이 더욱 높은 집단일수록 다문화 집단에 대한 낮은 수용태도를 보일 것이다.
 - 2-1. 노년층은 청년층에 비해서 낮은 수용태도를 보일 것이다.
 - 2-2. 중장년층은 청년층에 비해서 낮은 수용태도를 보일 것이다.

3. 외국인과의 접촉가능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다문화 집단에 대한 낮은 수용태도를 보일 것이다.
 - 3-1. 외국인 거주 비율이 고밀도인 지역에 사는 집단은 평균이하의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보다 낮은 수용태도를 보일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대상 집단의 분류

2011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서울특별시, 2011)를 사용하여 연구모형의 검증이 시도되었다. 2011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이하 서울서베이)의 참여 대상은 서울 시내 2만 가구(15세 이상 가구원 45,605명) 및 거주외국인(2,500명), 사업체 5,500개(국내 사업체 5,000개, 외국인 투자사업체 500개)이며 자료는 방문면접을 통하여 참여 대상자의 사회적 신뢰 및 공동체 의식, 계층 구조 및 시민의식, 다문화 인식 등 사회 전반적인 지표를 조사한 것이다. 서울서베이는 2003년 이래로 매년 실시되고 있는 코호트조사이며 2005년부터는 주민등록과 과세대장을 통해 만들어진 표본추출틀을 활용하여 조사가 실시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 e-지방지표에서 서울시 인구천명 당 외국인 비율¹⁾과 서울시 국적별 외국인 현황(법무부, 2012)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적을 이용하여 지역변수²⁾를 생성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최소지역단위는 서울시 관내 25개 구이다. 지방지표와 국적별 외국인 현황은 2011년과 2012년 데이터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왜냐하면 2011 서울서베이의 조사기간이 2011년 06월에서 2012년 05월까지이므로 일 년치의 통계 값만 사용하게 되면 분석의 오차가 커질 것이라 고려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의 검증에 서울서베이(2011)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자료의 적합성을 제공한다. 첫째, 본 연구는 통합적 갈등이론(Stephan et al., 1999a)에 따라 집단별로 다문화 집단에 대한 수용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 전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집단 분류의 가장 중요한 요소(기준)로써 본 연구는 고용형태, 연령, 그리고 외국인 거주비율을 고려하였다. 서울서베이의 경우, 본 연구에서 고려한 상위의 기준변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에 연구모형의 설정 및 집단설정에 큰 제약을 주지 않았다. 또한 개별집단 별로 최소 3,400명 이상의 대상자수를 제공하고 있어 연구결과의 외적타당도(generalizability)를 높이는 데도 기여 하였다. 둘째, 서울서베이는 다문화 집단에 대한 인식을 한 측면이 아닌 이웃, 친구, 정책, 그리고 사회적 편견을 포함한 다각적 측면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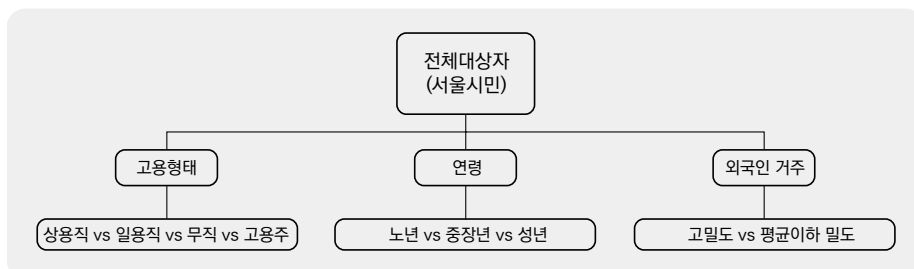
1) e-지방지표는 인구천명 당 외국인 비율을 서울시 전체 비율과 25개구 별 외국인 비율을 같이 제공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구별 외국인 비율을 사용하였다.

2) 동일지역(구)을 공유하는 참여자는 동일한 거주 외국인 정보를 가지게 된다.

측정하고 있다. 변수측정에 있어서 이러한 다각성은 본 연구에서 사용될 종속변인(수용태도)의 내용타당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고려되었다.

모형의 검증 및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체 자료에서 다음의 연구 대상을 추출 및 분류하였다. 먼저 현실적 집단갈등을 통한 다문화 집단에 대한 수용태도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고용형태에 따라, 상용직, 일용직, 무직, 그리고 고용주의 총 4개 집단으로 구분했다(그림 2 참고). 다음으로 연령은 상징적 갈등을 측정하는 요소로써 선택되었다. 전체대상자들 가운데 18세에서 39세까지를 청년층, 40세에서 64세를 중장년층, 그리고 65세에서 98³⁾세까지를 노년층으로 분류하였다. 끝으로, 서울시의 전체 구(총25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거주비율을 집단 간의 불안을 측정하는 요소로 설정하였다. e-지방지표로부터 각 구의 2011과 2012년의 인구 천명 당 외국인 수(거주 외국인)를 구한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서울시 전체의 인구 천명 당 외국인 거주인수는 25.75명이다. 이 평균값을 기준으로 평균이하의 구는 평균이하밀도 구, 기준 이상의 외국인 밀도를 보이는 구는 고밀도 구로 분류하였다. 목록별 결측치 제외(listwise deletion)방식을 채택하여 사전분석에 사용될 통제변수의 결측치를 제외하였다. 그룹을 분류한 후, 자료에 발생한 최대 결측치는 0.01% 이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표본의 크기는 29,509명이다.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고 외적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모든 분석에 서울서베이에서 제공하는 가중치 변수를 적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대원 가중치의 합계가 표본크기와 동일하도록 조정된 표준화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그림 2. 집단 구분과정



3) 서울서베이(2011) 참여대상자의 최소연령은 15세 그리고 최대연령은 98세이다. 그러나 연구의 목적에 따라 취업가능연령이 되지 않는 18세 미만의 대상자(2,097명)와 주부(9,998)는 연구에서 배제한 후 분석하였다.

2. 분석방법

가설 및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하여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였다. 첫째, 각 개별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다문화 집단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모형의 종속변인인 다문화 집단에 대한 수용적 태도의 사용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도(Cronbach Alpha)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이론에 따라 구성한 집단 간의 차이가 다문화 집단에 대한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자료는 SPSS 21.0 Packag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분석의 유의수준은 5% 이하로 설정하였다.

가. 측정변수의 설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목록은 아래 <표 1>과 같다. 연구의 종속변수는 서울서베이에서 외국인 및 이민자에 대한 태도를 묻는 5문항을 이용하여 다문화 집단에 대한 수용태도를 구성하였고 전체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통합적 갈등이론에서 제공한 4가지 관점 가운데 본 연구는 부정적 고정관념을 제외한 3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개별집단을 구분하였다. 현실적 갈등이 다문화 집단에 대한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전체 집단을 고용형태에 따라 상용직, 일용직, 무직, 그리고 고용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상징적 갈등의 영향력은 연령집단을 통해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내집단의 상징, 즉 한국사회에서 통용되는 도덕적 가치 및 전통적 문화에 대한 인식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 강하게 내포하고 고수되리라 가정하였다. 기존의 다양한 실증연구(박수미·정기선, 2006; 황정미 외, 2007; 오영삼·노은영, 2014)를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다문화 집단과 같은 소수집단에 대한 수용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윤상우와 김상돈(2010)의 연구에서는 연령의 증가가 수용의 태도와 부정적인 관계에 있는 유교적 가치와 자민족 중심주의와는 정적으로, 긍정적인 관계에 있는 진보적 정치관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짐을 밝혔다. 또한, 원숙연(2011)의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 보다 외국인의 증가를 사회문화적 침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령집단을 청년층, 중장년층, 그리고 노년층으로 구분하였다. 집단 간의 불안은 지역변수를 사용하여 본인

이 거주하는 지역(구)에 상주하는 외국인의 비율(인구 천명 당 외국인 수)을 통해서 검증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외국인의 상주비율이 높을수록 집단의 접촉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기존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집단관의 접촉 가능성이 증가할수록 그들에 대한 수용의 태도가 낮아짐을 보고하고 있다(원숙연, 2011). 서울시 전체의 외국인 평균 거주비율(25.75명)을 기준으로 기준이하이면 평균이하밀도, 기준보다 높으면 고밀도 지역으로 재분류하였다.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

구분	변수	정의 및 측정
종속변수	다문화 집단에 대한 수용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에 대한 수용태도가 높음)	자녀의 배우자로서 외국인에 대한 허용 친구로서 외국인에 대한 허용 이웃으로서 외국인에 대한 허용 인구감소를 위한 이민(외국인)정책의 필요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
통제변수	성별	남(=1), 여
	소득(점수가 높을수록 고소득)	1-6
	교육(점수가 높을수록 고등교육)	1-4
	혼인	유배우자(=1), 무배우자(이혼/별거/사별/미혼)
	인지된 사회적 지위(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인지된 사회적 지위)	1-3
	가구원 수	1-8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무교(준거집단)
	자녀양육	14세 이하의 아동양육(=1)
집단변수	영미유오국 출신 외국인 거주비율	[구별 북미, 영국, 유럽, 오세아니아 국가출신 외국인의 수/ 구별 전체 외국인의 수] × 100
	직업(고용상태)	상용직, 일용직, 무직, 고용주(준거집단)
	연령	노년층(65-98세), 중장년층(40-64세), 청년층(18-39세; 준거집단)
	인구천명 당 외국인 거주비율	고밀도, 평균이하밀도 (25.75명 이하; 준거집단)

또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문화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고려된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 인지된 사회적 지위, 가구원 수, 종교, 자녀양육, 그리고 영국·북미·유럽·오세아니아 국가들(이하 영미유오국) 출신의 외국인 거주비율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통제변수 가운데 영미유오국 출신의 외국인 거주비율은 인종에 대한 일종의 대리변수이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백인종 보다는 황인종이나 흑인종에게 더 큰 편견과 낮은 수용의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황미애, 2009; 윤상우·김상돈, 2010).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국적별 외국인 현황(법무부, 2012)을 이용하여 각 구별 거주 외국인들 가운데 영미유오국 출신 외국인 수의 비율을 측정하였다. 변수 생성 과정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국적별 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의 출신국가는 총 59개국(기타포함)이며 현황에는 전체 외국인의 인종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인종을 측정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전체 국민 가운데 백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와 유럽전체의 국가로부터 온 외국인들을 하나의 범주로 재분류하였다. 이 범주에 소속된 외국인의 각 구별 비율을 구하기 위하여 각 구별 전체 외국인을 분모로 한 후, 100을 곱해주었다. 더미화 처리된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정상분포(Curran et al., 1996)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연구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29,509명의 성인이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남자가 64.3%였으며, 교육수준은 대졸이하의 경우가 전체 대상자의 과반수를 넘는 52.3%를, 35%가 고졸이하, 10.5%가 중졸이하 그리고 2.3%가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나타냈다. 혼인상태는 73.7%가 기혼이었으며, 미혼 16.1%, 이혼/별거 그리고 사별이 5.6%였다. 가구소득은 월평균 500만원 이상이 26.5%로 가장 많았으며, 300만원~400만원이 24%, 400만원~500만원은 23.2%로 70% 이상의 대상자가 300만 원 이상의 가구소득자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준거집단에 따른 대상자의 지역 및 인구사회학적 변수 그리고 종속변수의 기술분석 결과는 <표 2>와 같으며 각 준거집단별 측정변수들 간의 통계적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카이스퀘어검정과 분산분석 그리고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2. 기술 분석표

(N=29,509)	고용상태				연령			외국인 거주비율		
집단구분	상용(a) (N=18,944/64.2%)	일용(b) (N=3,307/11.2%)	고용주(c) (N=3,757/12.7%)	무직(d) (N=3,501/11.9%)	노년(a) (N=3,079/10.4%)	중장년(b) (N=15,936/54%)	청년(c) (N=10,494/35.6%)	고밀도 (N=12,029/40.8%)	평균 (N=17,480/50.9%)	
수용태도	16.45 (3.13)	15.86 (3.48)	16.47 (3.12)	15.66 (3.47)	15.41 (3.49)	16.11 (3.21)	16.82 (3.08)	16.14 (3.21)	16.40 (3.23)	
Statistics	F=84.066*** (Post-Hoc: a>b***, d***; c>b***; c>d***)				F=288.264*** (Post-Hoc: b>a***; c>a***; c>b***)			t= -.68***		
성별(남 %)	68.1%	36.7%	74.1%	59.6%	67.0%	69.3%	56.0%	65%	63.3%	
Statistics	$\chi^2=1403.74^{***}$				$\chi^2=492.84^{***}$			$\chi^2=8.78^{**}$		
소득평균 (SD)	4.59 (1.20)	3.98 (1.45)	4.51 (1.38)	3.27 (1.66)	3.13 (1.61)	4.51 (1.32)	4.48 (1.23)	4.36 (1.34)	4.35 (1.42)	
Statistics	F=1110.80*** (Post-Hoc: a>b***, c***, d***; c>b***, d***; b>d***)				F=1481.94*** (Post-Hoc: b>a***; c>a***)			t= .995*		
교육평균 (SD)	2.68 (.57)	2.10 (.69)	2.35 (.66)	1.75 (.82)	1.53 (.73)	2.42 (.67)	2.81 (.46)	2.46 (.70)	2.47 (.72)	
Statistics	F=2618.38*** (Post-Hoc: a>b***, c***, d***; c>b***, d***; b>d***)				F=5410.51*** (Post-Hoc: b>a***; c>a***; c>b***)			t=.726		
혼인 (무배우자 %)	4647 (24.3%)	855 (25.9%)	621 (16.5%)	1649 (47.1%)	1068 (34.7%)	2244 (14.1%)	4460 (42.5%)	3187 (26.5%)	4585 (26.2%)	
Statistics	$\chi^2=996.56^{***}$				$\chi^2=2757.55^{***}$			$\chi^2=.257$		
인지된 사회적 지위	2.13 (.65)	1.86 (.71)	2.12 (.67)	1.76 (.73)	1.77 (.72)	2.09 (.68)	2.09 (.66)	2.06 (.66)	2.05 (.69)	
Statistics	F=407.46*** (Post-Hoc: a>b***, d***; c>b***, d***; b>d***)				F=307.44*** (Post-Hoc: b>a***; c>a***)			t=.046		
가구원 수	3.20 (.99)	3.09 (1.08)	3.20 (1.07)	2.81 (1.31)	2.61 (1.29)	3.28 (.99)	3.10 (1.03)	3.13 (1.04)	3.15 (1.07)	
Statistics	F=141.86*** (Post-Hoc: a>b***, d***; c>b***, d***; b>d***)				F=548.97*** (Post-Hoc: b>a***; c>a***; c>b***)			t= -1.649		
종교	기독교	4949 (26.1%)	850 (25.7%)	941 (25%)	975 (27.8%)	815 (26.5%)	4177 (26.2%)	2723 (25.9%)	3046 (25.3%)	4669 (26.7%)
	불교	2221 (11.7%)	457 (13.8%)	579 (15.4%)	684 (19.5%)	756 (24.6%)	2226 (14.0%)	959 (9.1%)	1770 (14.7%)	2171 (12.4%)
	천주교	2295 (12.1%)	373 (11.3%)	371 (9.9%)	450 (12.9%)	382 (12.4%)	1840 (11.5%)	1267 (12.1%)	1633 (13.6%)	1856 (10.6%)
	무교/기타	9479 (50%)	1627 (49.2%)	1866 (49.7%)	1392 (39.8%)	1126 (36.6%)	7693 (48.3%)	5545 (52.8%)	5580 (46.4%)	8784 (50.3%)

(N=29,509)	고용상태				연령			외국인 거주비율	
Statistics	$\chi^2=238.95^{***}$				$\chi^2=566.68^{***}$			$\chi^2=107.92^{***}$	
가정 내 아동 (14세이하%)	7208 (38%)	967 (29.2%)	968 (25.8%)	466 (13.3%)	311 (10.1%)	4720 (29.6%)	4578 (43.6%)	3944 (32.8%)	5665 (32.4%)
Statistics	$\chi^2=946.253^{***}$				$\chi^2=1355.14^{***}$			$\chi^2=.466$	
영미유오국 외국인비율	9.93 (8.53)	9.02 (7.42)	10.60 (9.21)	9.40 (7.25)	9.46 (7.68)	9.91 (8.31)	9.88 (8.65)	7.00 (7.66)	11.82 (8.27)
Statistics	F=24.99 ^{***} (Post-Hoc: a>b ^{***} , d ^{**} ; c>a ^{***} , b ^{***} , d ^{***})				F=3.79 [*] (Post-Hoc: b>a [*] , c>a [*])			t=-51.367 ^{***}	

주: * p<.05, ** p<.01, *** p<.001 수준에서 유의

먼저, 고용상태에 따른 집단구분에서는 수용태도, 성별, 소득, 교육, 혼인상태, 인지된 사회적 지위, 가구원의 수, 종교, 가구 내 14세 이하의 아동양육 유무, 그리고 거주하는 지역 내의 영미유오국 출신 외국인의 거주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연령집단에서는 수용태도, 성별, 소득, 교육, 혼인상태, 인지된 사회적 지위, 가구원의 수, 종교, 가구 내 14세 이하의 아동양육 유무, 그리고 거주하는 지역 내의 영미 유오국 출신 외국인의 거주비율이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였다. 반면, 외국인 거주밀도에 따른 집단구분에서는 수용태도, 성별, 소득, 교육, 종교, 그리고 거주하는 지역 내의 영미 유오국 출신 외국인의 거주비율만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표 2 참조). 각 준거집단 내에서 다문화 집단에 대한 수용태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먼저 고용상태의 경우 상용직과 고용주는 임시직과 무직에 비해 높은 다문화 수용태도를 보였으나 상용직과 고용주간의 수용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의 경우, 중장년층과 청년층은 노년층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높은 수용태도를 보였으며 청년층은 또한 중장년층보다 높은 수용태도를 보였다. 외국인 고밀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일 수록 평균밀도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보다 유의미한 수준의 낮은 다문화 수용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수용태도를 구성하는 5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대상자의 Cronbach의 알파 값은 0.733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신뢰도의 분석에서도 각각의 집단은 모두 0.7 이상의 알파 값을 보였으며, 청년층(0.70)에서 최소 값을, 그리고 노년층(0.78)에서 최대값의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Cronbach의 알파 값이 0.7을 초과할 경우, 척도의 신뢰도 수준은 충분(adequate)하다고 보고 있다(Cortina, 1993).

다. 지역변수 기술

<표 3>은 서울시 관내 25개 구에 거주하는 서울시민 천명 당 외국인 수와 이들 외국인 가운데 영미유오국 출신 외국인의 거주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천명 당 외국인 수의 평균(25.75명)을 기준으로 고밀도와 평균이하밀도로 구분하였는데, 영등포, 금천, 구로 등 11개 구가 고밀도 지역으로, 도봉, 노원, 은평, 등의 14개 구가 평균이하밀도 지역으로 나타났다. 밀도 별 각 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강북과 강서지역에 위치한 구들이 고밀도 군에 많이 속해있으며,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와 서울 최북부에 위치한 노원, 도봉, 강북, 은평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밀도의 외국인 거주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5개 구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들 가운데 영미유오국 출신의 외국인의 비율을 상위에서 구분한 밀도별 차이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결과에 따르면 천명 당 외국인의 수와는 제법 상이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외국인의 거주 비율이 가장 높았던 영등포, 금천, 구로 3구의 영미유오국 출신 외국인의 거주비율은 관내 25개 구 중에서 가장 낮았다. 반면, 외국인 거주인구가 비교적 낮았던 강남3구는 평균 23.78명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영미유오국 출신 외국인의 거주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했을 것이라 추측된다. 하나는

표 3. 지역변수(외국인 거주 비율)

(단위: 명, %)

서울시민 천명 당 외국인 거주비율	인구천명 당 외국인 거주 수(명)	영미유오국출신(%)
고밀도	종로(50.87), 중구(59.37), 용산(50.74), 구로(68.31), 금천(78.61), 영등포(98.29), 광진(37.27), 동대문(34.95), 서대문(30.64), 동작(28.56), 관악(35.68)	종로(10.84), 중구(8.66), 용산(27.82), 구로(0.80), 금천(0.44), 영등포(1.36), 광진(3.55), 동대문(5.68), 서대문(15.30), 동작(3.26), 관악(4.34)
평균이하밀도	성동(25.53), 중랑(11.06), 성북(18.70), 강북(10.21), 도봉(6.27), 노원(6.47), 은평(9.19), 마포(23.34), 양천(10.06), 강서(11.56), 서초(11.98), 강남(11.60), 송파(11.29), 강동(10.38)	성동(5.71), 중랑(2.99), 성북(11.56), 강북(6.04), 도봉(11.01), 노원(13.51), 은평(5.56), 마포(11.00), 양천(8.23), 강서(10.97), 서초(34.03), 강남(26.34), 송파(9.25), 강동(6.77)

강동과 강북지역에 공단지역과 외국인 집단촌이 형성(윤영환, 2009; 방성훈·김수현, 2012)되어 있어 많은 외국인, 특히 중국 및 동남/중앙아시아 국적의 외국인이 많이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강북과 강서지역에 비해서 강남지역은 임대료와 거주비용이 높다는 점이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적의 외국인의 거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고려된다. 특히, 강남3구를 위시한 특정 지역에 많은 대사관, 문화원, 외국어 학원 및 학교가 모여 있다(윤영환, 2009). 이로 인해, 영미유오국 출신의 외국인이 비교적 용이하게 취업을 했을 것이며 통근의 이점 등을 이유로 이 지역에서 거주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강남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영미유오국 출신 외국인의 거주비율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라. 회귀분석

본 연구에서 실시된 회귀분석에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수 변량(VIF)을 살펴본 결과 VIF값이 최소 1.01에서 최대 2.62로 나타났다. O'Brien(2007)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⁴⁾ 분석모형에는 심각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고려되었다. 통제변수와 내집단의 특성이 다문화 집단에 대한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모형1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가운데 성별, 교육수준, 가구소득, 종교, 혼인, 자녀의 양육, 그리고 영미유오국 출신 외국인의 거주비율은 다문화 집단에 대한 수용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원이 적을수록, 그리고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3종교 중 어느 종교라도 있는 사람일수록, 배우자가 없는 사람일수록, 아동이 없거나 혹은 15세 이상의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영미유오국 출신의 외국인이 많이 거주할수록 높은 수준의 수용태도와 연관관계(association)를 보였다. 그러나 가구원 수와 인지된 사회적 지위는 다문화 집단에 대한 수용태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모형2에서는 교육수준, 가구소득, 종교, 혼인, 자녀의 양육, 영미유오국 출신 외국인의 거주비율이 다문화 집단에 대한 수용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

⁴⁾ 다중공선성에 관한 VIF의 기준(threshold value)은 연구자와 연구 분야마다 조금씩 상이하게 보고되고 있다. Allison(1999)의 경우 기준을 2.50로 지정하였으나 O'Brien(2007)은 샘플의 수와 변수의 수에 따라 4.0에서부터 최대 10까지 허용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적은 샘플사이즈를 사용할수록 낮은 수치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O'Brien, 2007).

미한 영향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가구원 수, 사회적 지위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표 4. 내집단의 특성에 따른 다문화 집단에 대한 수용태도

		모델 1		모델 2	
		B(β)	SE	B(β)	SE
통제변수	성별	-.08*(-.01)	.04	-.07(-.01)	.04
	교육	.86***(.19)	.02	.69***(.15)	.03
	가구소득	.06***(.02)	.01	.04**(.01)	.01
	사회적 지위	-.00(-.00)	.02	-.00(-.00)	.02
	가구원 수	-.03(-.01)	.01	-.01(-.00)	.01
	기독교	.20***(.02)	.04	.25***(.03)	.04
	천주교	.24***(.02)	.06	.29***(.02)	.06
	불교	.26***(.02)	.05	.34***(.03)	.05
	혼인	-.32***(-.04)	.04	-.17***(-.02)	.04
	아동양육	-.12**(-.01)	.04	-.22***(-.03)	.04
	영미유외국 거주비율	.01***(.04)	.00	.01***(.03)	.00
	집단변수	고용형태			
상용직		-	-	-.44***(-.06)	.06
일용직		-	-	-.52***(-.05)	.07
무직		-	-	-.41***(-.04)	.08
연령					
노년층		-	-	-.77***(-.07)	.08
중장년층		-	-	-.55***(-.08)	.04
외국인비율					
고밀도	-	-	-.11**(-.01)	.04	
Constant		14.18	.08	15.34	.12
R2(ΔR2)		.047		.054(.007***)	
F(model)		131.93***		100.39***	

주: * p<.05, ** p<.01, *** p<.001 수준에서 유의

인구사회학적 및 지역변수를 통제하고도 내집단의 구분은 다문화 집단에 대한 수용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먼저, 고용형태에서 전 집단은 고용주에 비해서

낮은 수준의 수용태도와 통계적 연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역으로 해석하면 노동시장에 외국인을 고용하는 입장에 있는 고용주 계층일수록 다문화 집단에 대한 가장 높은 수용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 외국인들과의 취업경쟁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계층이 고용주 집단이라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현실적 갈등을 적절하게 지지한다. 연령의 경우, 노년층과 중장년층은 청년층에 비하여 높은 수용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관계를 보였다. 즉, 40세 이상 그리고 65세 이상의 서울에 거주하는 인구일수록 젊은 세대(18-39세)보다 다문화 집단에 대한 낮은 수용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젊은 세대에 비하여 노년층이 전통문화 및 보수적인 가치를 더욱 지향하고 옹호함을 밝힌 기존의 연구결과(김의철 외, 2000)를 고려할 때, 결과에서 도출된 연령과 다문화 수용태도 사이의 부적인 연관관계는 논리적 당위성을 만족시킨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고용주 집단의 약 85%가 40세 이상의 중장년층 및 노년층임을 고려할 때, 연령의 증가와 낮은 수용태도 사이의 유의미한 연관관계는 현실적 갈등의 결과가 아닌 상징적 갈등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끝으로 외국인 거주에 따른 집단구분의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이하밀도 지역에 비하여 고밀도 지역일수록 낮은 다문화 수용태도와 유의한 연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대한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한 이유는 거주 지역 내의 영미유오국 출신 외국인의 거주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수용태도와 유의한 연관관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외국인의 밀도가 높은 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문화 집단에 대한 낮은 수용태도를 보이지만 영미유오국(주로 백인종)에 대해서는 높은 수용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서울시민은 외국인과의 접촉이 증가할수록 낮은 수용태도를 보이지만 이 수용적 태도는 인종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은 대부분은 지지되었다.

IV. 결론

본 연구는 통합적 갈등이론이 제시한 3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을 3가지 형태의 집단으로 재분류하고 개별 집단의 특성이 다문화 집단에 대한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고용형태, 연령, 그리고 지역 내 거주 외국인의 비율은 각각 현실적 갈등, 상징적 갈등, 그리고 집단 간의 불안(접촉에 따른 갈등)을 대변하는 집단변수로 설정되었다. 회귀분석의 결과 다문화 집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고려된 변수들을 통제하고도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든 집단변수는 다문화 집단에 대한 수용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으며 모형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분산분석의 결과 다문화 집단에 대한 수용태도는 개별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고용형태별로는 고용주가 가장 높은 다문화 집단에 대한 수용태도를 보였으며 상용직, 무직, 그리고 일용직 순으로 낮은 수용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노년층, 중장년층, 그리고 청년층의 순으로 높은 다문화 수용태도를 보였으며 외국인 거주비율에서는 평균이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고밀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높은 다문화 수용태도를 보였다. 사후분석 결과, 상용직과 고용주사이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 1과 2에서 교육수준, 가구소득, 종교, 그리고 영미유오국 출신 외국인의 거주비율은 정적으로 혼인과 아동양육은 부적으로 수용태도에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세 가지 종교 중 어느 종교라도 가지고 있을수록, 그리고 지역에 북미·유럽·오세아니아출신의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일수록 다문화 집단에 대한 수용태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배우자가 있을수록 그리고 가정 내 14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일수록 다문화 집단에 대한 수용태도가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끝으로 집단변수의 경우, 모든 집단이 통계적으로 부적인 유의미성을 보였다. 즉 모든 노동자군(일용, 상용, 무직)은 고용주 집단보다 낮은 수준의 수용태도를, 고령층과 중장년층은 청년층보다 낮은 수준의 수용태도를, 그리고 외국인의 거주가 고밀도(평균초과)인 지역에 사는 사람은 평균이하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낮은 수용태도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과의 해석에 있어 외국인 거주비율에 대한 결과는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내집단의 외집단에 대한 접촉과 그들에 대한 인식사이의 관계는 상당히 논쟁적인 결과를 불러온 것이 사실이다. 일부의 연구에서는 접촉의 빈도가 증가할수록 내집단이 외집단에 가지는 편견 및 부정적인 인식이 저하(김혜숙 외, 2011)된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일부의 연구에서는 거주지역 내의 외집단의 거주 밀도가 증가할수록 외집단에 대한 내집단의 수용태도가 낮아진다고(원숙연, 2011) 보고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감정 및 사회적 거리감과 직접접촉경험 사이에 어떠한 유의미한 영향관계도 증명되지 않음(황미애, 2009)을 보고하고 있다. 오히려 다양한 연구에서는 접촉의 양보다는 외집단의 특성, 즉 거주 외국인의 출신국가 및 인종이 접촉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보고하고 있다(유승무 · 이태정, 2006; 황미애, 2009). 다시 말해, 내집단이 얼마나 많은 외국인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관점도 중요하지만 “어떤 외국인”과 접촉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려도 다문화 수용에 대한 중요한 요인으로 제고되고 있다.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 사용된 영미유오국 출신 외국인의 거주비율은 이러한 관점이 반영된 변수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구역에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에 대하여 낮은 수용적 태도를 가지지만 거주 외국인이 영미유오국 출신 외국인일 경우, 반대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접촉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면 다문화에 대한 수용태도가 저하하게 되지만 접촉의 대상이 백인 혹은 선진국 출신일 경우, 오히려 수용의 태도가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유승무 · 이태정, 2006; 황미애, 2009)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한국인이 외국의 인종 및 출신국가에 따라 상반된 태도를 가짐을 증명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상위의 결과는 통합적 갈등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3가지 관점, 즉 희소한 자원에 대한 경쟁, 내집단의 가치(상징성)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갈등, 그리고 접촉에 따른 집단 간의 불안의 정도에 따라 외집단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논리를 적절히 뒷받침한 결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함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다문화 집단에 대한 내집단의 수용의 태도를 다각적인 차원에서 해석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많은 연구들이 내집단의 다문화 집단에 대한 수용을 노동, 연령, 가치관 등의 단면적인 차원 및 범주 안에서 분석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외집단에 대한 수용 및 인식이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내집단의 구성원이

단일범주가 아닌 다차원적인 범주 및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시도한 통합적 갈등이라는 분석의 틀은 다양한 논점이 혼재되어 있는 다문화관련 이슈와 갈등의 양상을 해석하는 틀로써 그 의미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외적타당도를 증대하기 위하여 2011 서울서베이⁵⁾를 사용하였다. 서울서베이는 층화 2단 집락표본추출법을 통해 표본이 설계되었는데, 이 방법은 모집단을 특정 기준에 따라 상이한 소집단으로 구분한 후, 선택된 소집단을 무선(random)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형성된 서울서베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연구 자료보다 더 높은 외적타당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모집단(서울시민 전체)에 대한 모수추정에도 더 유리한 이점을 지닌다. 자료가 가지는 특성과 더불어 본 연구는 서울서베이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가중치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의 결과가 최대한 모집단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통계청과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동일년도의 지방지표 및 외국인 현황을 이용하여 서울시민의 거주지역변수를 구성하였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사용된 지역관련 변인들이 대상자의 인지에 기반을 둔 것에 비하여 본 연구의 지역관련 변인은 훨씬 더 정교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 머지를 통해 지역변수를 새롭게 생성하는 시도는 다문화와 관련된 추후연구에 새로운 접근(변수생성)방법을 제시하였다고 고려된다.

이상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연구의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접촉에 있어서 양적인 접근만을 시도하였다. 외국인 거주비율 및 영미유오국 출신의 외국인 거주비율은 접촉의 양적인 측면을 대리하는 변수이다. 일반적으로 접촉의 질적인 측면은 접촉시의 만족, 목적, 관계, 그리고 지속성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도구 및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외국인과의 접촉에 있어 질적인 측면을 분석모형에 포함한 양적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를 통하여 접촉의 질과 수용태도와의 관계를 분석하거나 측정도구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통하여 내용 및 외적타당도를 강화시키는 모형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료상의 한계로 인하여 외집단인 외국인의 인종을 정확한 구별을 하지 못하였다. 즉, 영미유오국 출신이라 할지라도 백인이 아닌 황인, 흑인 혹은 다른 인종이 섞여 있을 가능성은 대단히 크다. 특히, 호주 및 북미와 같이 다인종 국가의 경우, 그 정도가 클 것으로 예측

5) 표본의 추출방법과 가중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011 서울서베이(변미리 외, 2012)를 참고하기 바람.

된다. 반대로 남아프리카 및 다른 지역 출신의 외국인이 흑인이나 황인이 아닌 백인일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변수측정의 한계로 인하여 연구결과의 추정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추후 연구결과에서는 인종적 특성이 정확히 기록된 자료를 이용하여 외집단의 인종과 내집단의 인식사이의 관계를 좀 더 정확히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령의 차이가 도덕적 가치 및 규범적 믿음(상징적 갈등)을 대변한다고 가정하였다. 비록 다양한 실증 및 이론 연구에서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의 샘플, 즉 서울시민들이 이러한 가정을 정확히 따른다는 통계적 근거는 제시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다음 연구에서는 집단의 상징성에 대한 옹호정도(도덕적·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인지변수를 활용하여 내집단의 상징적 갈등을 더 정밀히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끝으로 고용상태는 기존연구에서 현실적 갈등을 측정하는 데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요소이지만 이 요소가 현실적 갈등을 모두 설명하기란 사실 어렵다. 오히려 직급별, 직종별, 직무 혹은 지위에 따른 다양한 직업관련 요인들이 현실적 갈등을 더 정확하게 설명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현실적 갈등에 따른 다문화 집단에 대한 인식을 분석할 때, 고용상태와 더불어 다른 직무요인들을 포함하여 더 정교한 연구모형을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오영삼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건강정보, 암 생존자 및 부양가족 연구, 다문화 정책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yxo36@case.edu)

남성희는 미국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다문화복지, 장애복지이며, 현재 다문화 가정, 장애인 가정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snam528@ewha.ac.kr)

윤수경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다문화사회복지 및 가족, 개발도상국의 사회복지제도이다.

(E-mail: Ysukyoun91@gmail.com)

참고문헌

- 권승(2009). 다문화사회에 대한 지방정부 공무원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 21세기 정치학회보, 19(1), pp.353-378.
- 김상학(2004).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1, pp.169-206.
- 김승환(2013). 이주민에 대한 언론 보도가 수용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 주관성연구, 26, pp.39-55.
- 김의철, 박영신, 김명연, 이건우, 유호식(2000). 청소년, 성인, 노인 세대의 차이와 생활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pp.119-145.
- 김이선, 황정미, 이진영(2007).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1):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2011).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pp.51-89.
- 박수미, 정기선(2006).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관한 연구. 여성 연구, 70.
- 방성훈, 김수현(2012). 한국계 중국인 밀집주거지의 분화에 관한 연구-서울시 가리봉동과 자양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19(2), pp.39-68.
- 백지은(2008). 한국노인의 전통적 가치관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차이. 한국노년학, 28(2), pp.227-249.
- 법무부(2012). 2012년 서울시 국적별 외국인현황. <http://data.seoul.go.kr/openinf/linkview.jsp?infd=OA-892>. 2014.03.02. 인출.
- 법무부(2013). 2012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서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이민정보과.
- 변미리, 박민진, 김혜란, 최봉, 김상일, 홍석기, 외(2012). 2011년 서울서베이.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2011). 2011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http://data.seoul.go.kr>. 2013.09.01. 인출.
- 송미영(2010). 한국의 다문화의식: 다문화 수용성의 원인 분석. 민족연구, 41, pp.74-97.
- 신동준(2012). 다문화사회 범죄문제의 사회적 맥락: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3(4), pp.183-217.

- 오영삼, 노은영(2014).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서울시민의 다문화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용형태별 차이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5(1), pp.187-209.
- 원숙연(2011). 외국인 및 외국인정책에 대한 인식의 지형분석: 서울시 25개 구를 대상으로 한 탐색적 시도, *국가정책연구*, 25, pp.27-54.
- 유승무, 이태정(2006). 한국인의 사회적 인정 척도와 외국인에 대한 이중적 태도. *담론*, 9(2), pp.275-311.
- 윤상우, 김상돈(2010). 사회병리적 Agenda: 사회적 가치관이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6(1), pp.91-117.
- 윤영환(2009). 외국인 커뮤니티에 대한 치안확보 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5, pp.139-183.
- 이영숙, 김용숙, 류국련(2001). 한국노인과 중국노인의 라이프스타일 비교-한국의 전북지역과 중국의 요녕성(遼寧省)을 중심으로 -. *한국노년학회*, 21(2), pp.53-69.
- 이인재(2010). 다문화사회에서의 초등학교 반편견교육, *윤리교육연구*, 22, pp.253-272.
- 이종복, 이성순, 김재열, 김현희, 정명희(2012).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복지. 경기: 양서원.
- 인태정(2009). 다문화 사회 지향을 위한 인종의 사회적 거리감과 문화적 다양성 태도 연구-부산, 울산, 경남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3(2), pp.339-370.
- 임도경, 김창숙(2011).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및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거리감, 외국인 이미지, 한국인 인정조건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9, pp.5-34.
- 임동진, 박진경(2012).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에 대한 정책참여자들의 태도와 성향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6(2), pp.29-62.
- 장인실, 정경미(2009). 편견감소교육 프로그램이 편견과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학연구*, 15(2), pp.103-129.
- 전미순 외 7명(2013). 대학생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 *다문화건강학회지*, 3(1), pp.9-14.
- 조혜영(2009).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사의 연구: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12(1), pp.263-295.
- 최명민, 이기영, 최현미, 김정진(2009).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복지. 서울: 학지사.
- 황미애(2009). 외국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생들의 차별적 태도 연구, *시민교육연구*, 41(3), pp.205-226.
- 황윤영, 이은숙(2013). 대학생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청소년시설환경*, 11(4), pp.171-180.

-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현, 이동주(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Allison, P. D. (1999). Multiple regression: A primer. *Thousand Oaks, CA: Sage*.
- Aronson, E., & Gonzalez, A. (1988). Desegregation, jigsaw, and the Mexican-American experience. In P. Katz & D. Taylor (Eds.), *Eliminating racism*, New York, NY: Plenum Press, pp.301-314.
- Cortina. J. (1993). What is coefficient alpha? An examination of theory and applic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1), pp.98-104.
- Curran, P. J., West, S. G.,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pp.16-29.
- Esses, V. M., Jackson, L. M., Armstrong, T. L. (1998). Intergroup Competition and Attitudes Toward Immigrants and Immigr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54(4), pp.699-724.
- Hogg, M. A. (2013). Intergroup relations. In J. DeLamater & A. Ward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2rd ed., New York: Springer, pp.599-658.
- O'Brien, R. M. (2007). A caution regarding rules of thumb for variance inflation factors. *Quality & Quantity*, 41(5), pp.673-690.
- Stangor, C., Sullivan, L. A., Ford, T. E. (1991). Affective and cognitive determinants of prejudice. *Social Cognition*, 9(4), pp.359-380.
- Stephan, W. G., Stephan, C. W. (1996). Predicting prejudic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0(3-4), pp.409-426.
- Stephan, W. G., Stephan, C. W., Gudykunst, W. (1999a). Anxiety in intergroup relations: A comparison of anxiety/uncertainty management theory and integrated threat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3(4), pp.613-628.
- Stephan, W. G., Ybarra, O., Bachman, G. (1999b). Prejudice toward immigrants: An intergrated threat theor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9, pp.2221-2237.
- Taifel, H., & Turner, J. 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 In S. Worchel & W.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Chicago: Nelson-Hall, pp.7-24.
- Tajfel, H. (1981). Social stereotypes and social groups. In J. C. Turner & H. Giles (Eds.), *Intergroup behaviour*, Oxford, UK: Blackwell, pp.144-167.
- Vala, J., Pereira, C., Ramos, A. (2006). Racial prejudice, threat perception and opposition to immigration: A comparative analysis. *Portuguese Journal of Social Science*, 5(2), pp.119-140.
- Zarate, M. A., Garcia, B., Garza, A. A., Hitlan, R. T. (2004). Cultural threat and perceived realistic group conflict as dual predictors of prejudi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0(1), pp.99-105.

The Influence of Feature of Intergroup on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of Seoul Citizen:

Focusing on the Integrated Threat Theory

Oh, Young-Sam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Nam, Sunghee

(Ewha Womans Univeristy)

Yoon, Sukyoung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certain features of intergroup dynamics on multi-cultural acceptance of Seoul citizens. To address this purpose, this research selected 29,509 Seoul citizens as the research sample from the seventh wave(2011) of Seoul Survey Study. Based on the integrated threat theory, this research classifies the citizens into three categories, including type of employment, age, and the number of foreigners living in the neighborhood. These categories are dependent upon the theory's three postulations: Realistic threat; Symbolic threat; and Intergroup anxiety. From the research findings, first, this study revealed that people who are full time, part time, and unemployed are more likely to have lower level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than employers do. Second, compared to younger populations(18-39), older generations (aged 40-64) are more likely to have lower level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Third, people living in areas with a high density of foreigners living there are more likely to have lower level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compared to people living in areas with a below average number living there. Regarding multi-cultural issues with various and complicated structures and interests, the analytic framework(i.e., integrated threats) applied in this research can be a proper way to interpret various causes and phases of multi-cultural problems with heterogeneous interests.

Keywords: Multicultural Acceptance, Integrated Threat, Realistic Threat, Symbolic Threat, Intergroup Anxiety